

19호, 2019년 12월

서울숲 지킴이들의 훈훈한 이야기

# 서울숲 컨서버ン시

서울숲 산책

더 예뻐질 튼립정원 기대했!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원봉사자 방담인터뷰\_어쩌다 제품(=빗자루) 개발팀

서울숲 다시보기

사육사가 들려주는 꽃사슴 이야기\_좀 더 가까이서 만나요!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수상\_안전한 공원 서울숲

‘아니, 벌써!’ 봄을 준비 중

더 예뻐질 튤립정원 기대했!



2016년 겨울부터 조성을 시작해, 2017년 봄부터 꽃을 피워 이제는 서울시 대표 봄꽃 명소가 된 서울숲 튤립정원을 아시나요? 올해 봄에도 정말 많은 분이 찾아와 함께 즐겨주셨지요.

서울숲은 지난 11월부터 2020년 튤립정원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숲공원 전 직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가 땅을 고르고 튤립을 심고 있는데요, 내년 봄 화려하게 피어날 튤립꽃밭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9만 송이에 육박하는 서울 도심 최대 규모! 2020 봄 시즌, 서울숲 최고의 기대작!

내년 봄, 더 예뻐질 서울숲 튤립정원을 미리 만나볼까요?

### 더 커진 규모, 색다른 컨셉, 섬세한 기획

2020년 튤립정원은 약 4,380m<sup>2</sup> 면적 약 9만 송이의 튤립과 수선화를 심어 조성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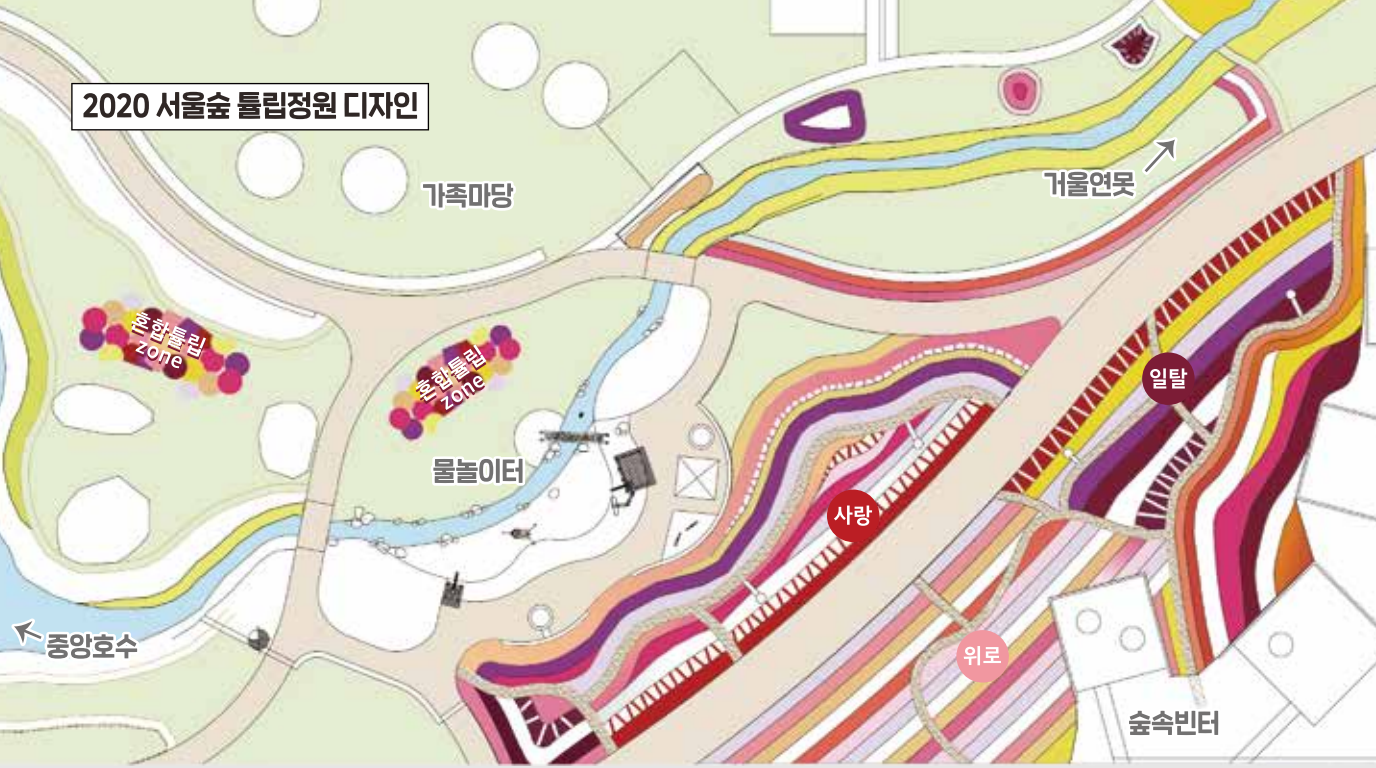
지난해보다 규모도 약간 더 커진 셈인데요, 하지만 규모보다 더 큰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2020년도 튤립 정원은 ‘봄의 손편지’를 메인 컨셉으로, 바쁜 도시인들이 열망하는 ‘일탈’, ‘사랑’, ‘위로’, 이렇게 세 가지를 주제삼아 컬러 배식과 시설물에 각각 차이를 두어 기획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튤립정원 부지를 면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품종의 튤립으로 디자인했다면, 이번에는 물결치는 선형으로

디자인 했는데요, 각기 다른 컬러의 튤립이 각기 다른 컬러 층을 이뤄 각 테마별로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지요. 특히 사진으로 찍었을 때 튤립으로 만들어 낸 화려한 컬러 레이어가 표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획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또 2020년은 튤립의 개화 시기를 고려해 더 섬세하게 설계했습니다. 일조량을 고려해 가장 해가 잘 드는 부지에 늦게 꽃을 피우는 만생종을 심는 등,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예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디테일한 디자인을 했다는 것도 내년 봄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2020 서울숲 튜립정원 디자인



### 29종의 튜립과 수선화를 물감 삼아 그린 그림같은 정원

튬립은 망고참, 캔디프린스 등 26종, 수선화는 모날, 더치 마스터, 2가지 품종을 서울숲 직원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심고 있습니다. 튬립과 수선화는 구근(알뿌리) 식물로 늦가을에 심으면 겨울동안 땅 속에서 기다리며 힘을 키워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기특한 녀석들이기도 하답니다. 튬립이 심어진 곳을 오가실 때는 그곳에 아직 꽃이 없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튬립정원은 2020년 4월 중순 쯤 가장 화려하게 변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튬립없이 아름다울 내년 봄, 튬립정원의 야자매트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더 예쁘고 특별한 인증샷도 남기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특히 중양호수까지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 수선화를 심어 작년에는 없던 색다른 노란 수선화 산책길도 선보일 예정이니, '아니, 벌써!'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울숲 튬립정원을 그려보며 기대해주세요.



인터뷰 <서울숲에서 만나요>

# 어쩌다 제품(=빗자루)개발팀

일할 때 분위기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핵.인사. 인터뷰 때도 꾸벅거리는 분위기를 개고 먼저 입을 열어준 아이스브레이커.

웃음이 (대단히) 많고 발랄한데, 모두에게 잘 맞춰주는 온근히 성실한 타입. 매뉴얼의 완성도를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킨 황금손.

중국의 유학생으로 말하는 가장 적지만 모두가 엄지를 높이 들고 허를 내두를 정도로 몹시 성실한 타입. 맛있는 간식도 아낌없이 베푸는 배포도 큰 친구.

공대생답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타입. 인터뷰어의 의중을 알아채고 원하는 답을 주려 한 그의 능력과 노력에 감사한다.



정희영(한양대 국악과 4학년) 노예슬(한양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4학년) 최성림(한양대 경영학과 4학년) 김준범(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학년)

지난 11월 6일 오후, 서울숲 자원봉사실에서 툄립구근심기 봉사활동을 막 끝내고 온 한양대학교 자원봉사자 김준범, 노예슬, 정희영, 최성림을 만나 30분간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네 명의 봉사자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서울숲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한양대학교 학생들 중 일부로,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울숲에서 대나무 부산물을 가지고 빗자루 만드는 법을 개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대나무 빗자루를 개발하는 일을 약 한 달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 고클(?)의 완성품을 만들어 낸 네 명의 봉사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숲에 많은 자원봉사활동이 있지만 이런 활동은 별로 없다. 단순작업이 아닌 기획된 활동이기도 하고, 서울숲에서 나오는 부산물, 말하자면 자연물 쓰레기를 활용해 다시 서울숲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라 더 특별하기도 하다.

‘우리가 뭐가 특별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지?’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아서... (웃음)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즐겁게 활동하는 걸로 보였다. 이번 빗자루 활동을 하고 난 느낌을 간단하게 듣고 싶다.

**희영** 우리가 학생이니까 공부하느라 보통 앉아서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서울숲에 와서 야외활동, 몸 쓰는 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다. 빗자루를 만들고 시연하면서 깨끗해진 길은 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준범** 개인적으로 빗자루 활동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서 특별했던 것 같다. 다른 건 ‘이거, 이거 하세요.’하면 그걸 그걸 이행하는 느낌으로 했다면, 빗자루 활동의 경우는 우리가

찾아보고, 구조를 알아보고 직접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 제작 매뉴얼도 만들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것 자체가 달랐고 더 재미있었다. 봉사활동이 학교에서 필수로 하라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 활동 중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게 좋았다.

**예슬** 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 잘했나?’ 싶은 간단한 거를 한 건데 되게 좋아해주셔서 얼떨떨했다. 엄청 좋아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셔서 좋았다. 이런 칭찬 들을 기회가 대학생들은 많이 없다. ...? 나만 그런가? (모두 웃음)

우선 서로 케미가 잘 맞고 너무 재미있게 일하는 것 같았다.

**예슬** 재미있었다. 우리 팀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아 힘든데...’ 하다가도 (성림 가리키며) 엄청 열심히 하시고 구슬땀 흘리시고 그러니까 나만 안할 수 없어서 같이 열심히 하게 되었다. 진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할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하시더라. (웃음) 다들 좋은 분들이다.

**성림** 아니... (웃음) 다들 열심히 하니깐 나도 한 건데... 다들 자발적으로 하니깐 나도 자발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다.

**준범** 담당 매니저님한테 들어보니 나중에는 더 발전 시켜서 빗자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까지 얘기하시더라. 부산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게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첫걸음인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희영** 혹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져서 몇 년 뒤에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빗자루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저거 시작을 우리가 했었는데.' 하고.



기성품 빗자루를 보고 연구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만드는 방법을 적어보고 그걸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연해보고, 다시 단점을 보완하고 했다 들었다. 얘기 듣고 이 팀이 한 게 기업의 제품개발팀에서 하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누가 옆에서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대단하단 생각도 들었다. 제품개발팀처럼 제품 소개 좀 해달라.

**준범** 처음에 세 개를 만들어봤었는데 크기와 무게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걸 사용하기 편한지 고민하게 되었다. 처음엔 막연하게 빗자루 모양대로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빗자루가 뻑뻑할수록 잘 쓸릴 것 같아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좀 엉성하게 해서 무게를 줄인 것도 만들어봤다. 잔가지만 조금 붙여서 가볍게 만든 것도 있다. 그렇게 만들고서 우리끼리는 뻑뻑한 게 더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가벼운 게 더 나왔다. 생산자가 예상하는 거랑 사용하는 사람의 니즈는 다르단 걸 알게 됐다.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써보고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어떤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희영** 무게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밖에서 환경미화 하시던 직원분이 오셔서 관심을 보이셔서 우리가 만든 걸 한번 써 달라고 부탁드렸다. 근데 그 무거운 빗자루 잠깐 써보시더니 '이건 너무 무거운데?'하고 바로 갖다 주셨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바로 아시더라. 그런데서 데이터를 좀 얻었다. 기성품을 해체해서 이걸 이런 구조로 만들었구나 보고 다시 역설계도 해보고 우리끼리 아이디어를 댈때서 조금씩 수정도 해보고 했던 게 얘기하신 것처럼 제품개발팀에서 하는 프로세스처럼 진행됐던 것 같다.

서울숲도 이런 걸 계속 하고 싶단 바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숲에 뭔가 아이디어를 보내주거나 응원해준다는 취지에서, 활동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한 마디씩 해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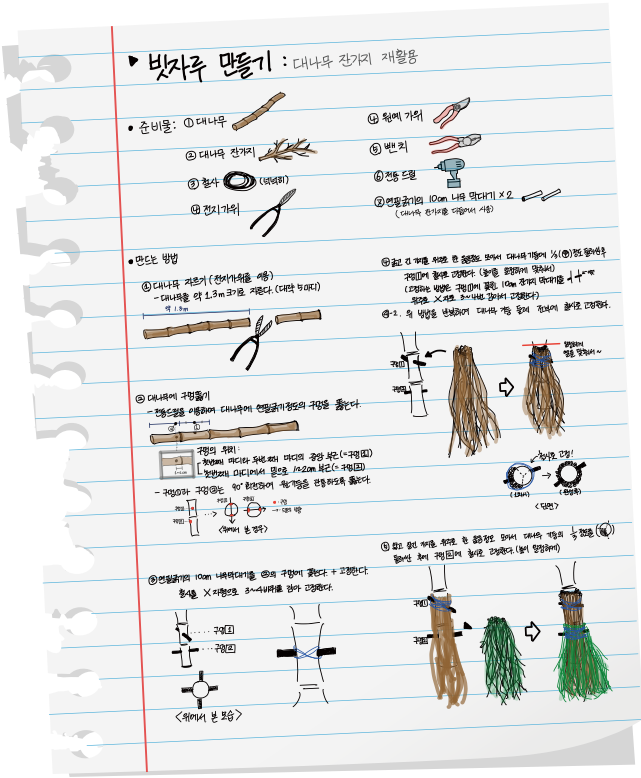
**예슬** 빗자루 만들기 이게 되게 그 의미 있는 활동이라면서 담당 매니저님이 엄청 강조하셔서 집에서 빗자루 매뉴얼을 그리면서도 그게 떠올라 다른 새로운 것도 되게 생각해주고 싶었다. (웃음) 뭐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서울숲에서 어떤 부산물들이 나오는지 잘 몰라서 결국 실패했다. 그렇지만 대나무로 빗자루 말고 다른 것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성림** 피리 같은 거라던가..., 기념품 같은 걸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판매도 할 수 있는 걸로.

**예슬** 좋은 것 같다. 그거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서울숲의 자연물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해보는 것. 집단지성 발휘해서 다들 뭐라도 생각해낼 것 같다.

**준범** 이번 활동과 관련해서는 봉사활동을 하는 중간에 빗자루 개발팀 같은 활동이 끼어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일단 공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화단을 정리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거 한 다음에 중간에 이런 활동들을 섞어서 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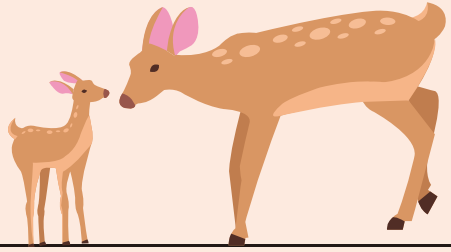
**성림**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서울숲에서 직원분들이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맙웠다. 빗자루 만들기에서는 다들 브레인스토밍이 잘 됐던 것 같다. 자기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사육사가 들려주는 꽃사슴 이야기 프로그램 리뷰

## 좀 더 가까이서 만나요!



글.사진 서울숲기자단 유서경

우리나라 꽃사슴은 어디에 얼마만큼 살고 있으며 무얼 먹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동물원에 가야 만날 수 있던 꽃사슴을 서울숲에서는 사육사의 설명을 들으며 만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사육사가 들려주는 꽃사슴 이야기>이지요



△ 서울숲 사육사로부터 사슴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곤충식물원 앞에서 단체로 신청한 학생들과 현장에서 신청하신 가족 분들을 만나 사슴우리 앞으로 이동하여 서울숲 사육사로부터 꽃사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꽃사슴의 뿔에 대해 설명을 들 수 있었습니다. 꽃사슴 뿔은 영역 또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한테만 있으며, 매해 성장하고 떨어지고 새로 난다고 합니다.



△ 난생 처음 꽃사슴의 뿔을 직접 만져보는 참여자

모두 신기해하며 떨어진 꽃사슴의 뿔(낙각)을 만져보고 기념사진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생 꽃사슴은 낙엽이나 나뭇잎 같은 초화류를 뜯어먹거나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서울숲 꽃사슴은 전용사료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사슴은 구제역이나 만성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슴들은 잘 걸리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다만 서울숲 꽃사슴을 아낀다면 집에서 가지고 온 간식 등의 음식물이나 특히 비닐봉지에 싸온 것들을 주지 마시고,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사슴들의 건강상태에 크게 위협이 되는 행동이므로 하지 말아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 서울숲 꽃사슴에게 직접 먹이를 주었다

가족들과 나들이 오셨다가 꽃사슴 이야기에 참여를 하게 되셨다는 참여자께서는 '서울숲이 생각보다 넓어서 자유롭게 되어 있는 모습이 사슴들을 가둬두고 있지 않아 좋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사슴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꽃사슴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슴의 습성이나 뿔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먹이까지 주는 재미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육사가 들려주는 꽃사슴 이야기는 1월까지, 동절기 휴식기를 가진 후 내년 2월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서울숲을 방문하신다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사슴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 12월의 서울숲



## 이야기가 있는 숲공방

**일시** 12월 3, 10, 17일 (화)  
19:00~20:30  
12월 5, 12, 19일 (목)  
11:00~12:30

**장소** 서울숲이야기, 방문자센터

**참가비** 5,000원

**내용** 자연물 모빌 또는 리스와 액세서리 만들기

**문의** 02-460-2994, 서울숲.kr



## 서울숲 스스로 가이드북투어

**일시** 상시. 현장 신청 후 진행

**장소** 방문자센터 (등록 및 관찰 키트 대여)

**참가비** 무료

**내용** 서울숲에서 나 혼자 투어를 할 수 있는 관찰 키트, 가이드북 제공(루페, 펜, 곤충경, 셀프가이드북)

**문의** 02-460-2905, 서울숲.kr



## 곤충식물원 사막의 크리스마스전

**일시** 12월 3일 ~ 12월 29일  
10:00 ~ 17:00

**야간개장** 12월 20일 ~ 25일

**장소** 서울숲 곤충식물원  
※ 월요일 휴관

**참가비** 무료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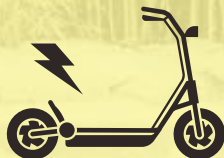
**내용** 추운 겨울엔 곤충식물원이 데이트 맛집!

**문의** 02-460-2928, 서울숲.kr

전동 킥보드, 휠 등  
모든 전동 탈것은  
공원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이용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 서울숲X푸르지오 장미빛정원

~ 2020년 2월 | 일몰시점 ~ 자정  
@서울숲 군마상 일대

